

수원시,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

NSP통신, 조현철 기자, 2020-07-28 17:14 KRD7

#수원시청 #비정규직 #노동자휴식권



28일 휴게시설 개선사업 현판식에 참석한 수원시의회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(왼쪽)과 송은자 의원(가운데) 및 동일운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(수원시)

(경기=NSP통신) 조현철 기자 = 경기 수원시(시장 염태영)가 경비·청소노동자들에 이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확대했다.

시는 공동주택 청소노동자들이 쾌적한 휴게공간에서 휴식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개선한 기존 사업의 범위를 일반 중소기업으로 넓혔다.

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28일 수원영통롯데아파트와 동일운수에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현판식을 진행했다.

현판식에는 수원시의회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과 송은자 의원, 수원시와 각 업체 및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.

수원영통롯데아파트 미화원 휴게공간에는 샤워시설과 개수대, 바닥시설 등이 추가돼 미화원들이 더 편리하게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.

또 동일운수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들의 휴게공간은 새로운 컨테이너로 교체돼 냉난방시설과 커피자판기 등 잠깐의 휴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변경됐다.

시는 지난 2015년부터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통해 지난해까지 22곳의 공동주택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해 왔다.

특히 올해는 7곳을 추가로 개선해 전체 지원 사업장은 총 29곳으로 늘어났으며 공동주택 뿐 아니라 일반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7곳 중 3곳이 수원시 내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.

올해 사업 대상은 ▲꽃외버들마을코오롱아파트 ▲수원영통롯데아파트 ▲수원광고해모로아파트 ▲평동동남아파트 ▲홍진기연 ▲동일운수 ▲부광운수 등이다.

이들 사업장 휴게공간은 지난 6월 한 달 간 개선공사를 진행해 더 편리하고 편안한 휴게공간으로 재탄생했다.

덕분에 약 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게 됐다.

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은 “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더 많은 노동자들의 근무 및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@nspna.com

저작권자©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·NSP TV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.

이 기사의 URL : <https://www.nspna.com/news/?mode=view&newsid=443985>